폴리미래, 무재해 3000일 달성

폴리미래는 무재해 10배수(3000일) 기록을 달성했다고 11월17일 발표했다.

폴리미래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생산 현장에서의 원포인트(One Point) 위험예지훈련, 아차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 또는 예견된 위험 요소의 지속적인 개선활동, 성숙한 Stop Card 활동(불안정한 행동의 시정조치), 그리고 매월 실시되는 안전캠페인, 자체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환경 점검, 매주 안전 순찰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 노동청 여수지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3000일을 달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11/1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